

# 여순사건도 70주년...진상규명 한목소리

### 문대통령 “제주 4·3 완전한 해결” 약속에 지역민 기대감

### 4·3 진압 거부하며 민간인 희생...여수시 명예회복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5·18헌법 전문 명시에 이어 제주 4·3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민족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지역 내에선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반란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돼 그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차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중단됐다.

이와 함께 18,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가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여순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민간인 희생자 추념식을 주관하게 된다.

여수시는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지역민 명예회복과 상생·화합을 위한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사업은 모든 유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여순사건 명예회복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게 된다.

시민추진위원회가 토론회, 문화제, 학술대회 등을 제안하면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매년 개최되는 추모행사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용서와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민간인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가 함께 발생해 그동안 두 유족 간 입장 차이에 관련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70년간 여수는 여순사건 앞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만 보였다”며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먼저 화

해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여수 민예총과 지역사회연구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제주 4·3을 맞아 추모행사를 여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시집 ‘좌광우도’를 쓴 김진수 여수 민예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분위기가 남쪽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무대를 펼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제주는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여수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쳐 아쉽다”며 “여순사건도 제주 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형형색색 봄꽃...천진난만 동심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 봄나들이 온 중흥어린이집 원생들 광장에 전시된 봄꽃을 바라보고 있다. 북구는 구청 광장에서 4일부터 13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봄꽃축제를 열고 형형색색의 봄꽃 15만본을 전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초·중·고생 513명이 자살 위험군

### 광주교육청 ‘스쿨 닥터’ 운영 등 상담 치료 조치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0.8%가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 6만3873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이 2754명(4.31%), 자살 위험군이 513명(0.80%)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으로 이뤄졌다.

각급 학교별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은 고교에서 739명과 211명, 중학교에서 882명과 300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도 관심군이 1133명으로 많았고, 자살 위험군도 2명이었다.

이들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쳐 전문가에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이 고교

에서 1954명과 412명으로 각각 1차 조사의 71.0%와 80.0%로 줄었다.

중학교에서도 2차 조사 결과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이 587명과 238명으로 1차 조사의 66.6%와 79.3%로 각각 줄었다. 초등학교는 2차 조사 결과 관심군 838명(1차의 74%), 자살 위험군 2명(1차와 동일)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들 자살 위험군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쳐 병원과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자살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심층면담을 통해 즉시 전문가와 병·의원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 닥터’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해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광주교육청은 이날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학교,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15개 심층평가 전문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달뜨기 22:39  
해질 18:56 달지기 08:41

반가운 '비'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16/19	보성	흐리고 비	13/19
목포	흐리고 비	13/16	순천	흐리고 비	15/21
여수	차차흐려져 비	14/19	영광	흐리고 비	13/15
나주	흐리고 비	15/19	진도	흐리고 비	13/19
완도	흐리고 비	13/19	전주	흐리고 비	15/17
구례	흐리고 비	14/20	군산	흐리고 비	14/14
강진	흐리고 비	14/20	남원	흐리고 비	15/18
해남	흐리고 비	14/20	홍산도	흐리고 비	11/13
장성	흐리고 비	15/18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북~북동	0.5~1.0	
남부	남~남서	0.5~1.5	북~북동	1.0~2.0	
남해	남~남서	0.5	북동~동	0.5~1.0	
서부	남동~남	0.5~1.5	북동~남	0.5~1.5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11/17	8/13	5/11	4/15	7/17	8/17	7/18

## 숨방망이 처벌에 환경법 위반 증가

### 광주·전남 3년간 40% 무혐의...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광주·전남지역 환경법 위반 고발 사건 3건 중 1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기소유에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환경범죄 고발건수는 모두 310건이었다. 이중 121건(39%)이 무혐의·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실행은 5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에 처분이 나왔다.

반면 실행은 23건(0.7%)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은 20건(0.6%)에

불과했고,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각 청별 고발 건수는 한강(1320건), 낙동강(543건), 금강(341건), 대구(335건), 영산강, 새만금(234건), 원주(108건), 수도권(41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분야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화, 조직화, 폐기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숨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보훈병원 “화장실·탈의실 개선하겠다”

광주보훈병원은 남·여환자에게 같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쓰게 했다는 지적(광주일보 2일자 7면)에 대해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광주보훈병원은 “문제가 된 인공신장실은 공간이 협소해 확장 이전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병원은 시설개선 이전 전까지는 임시로 여성 탈의실을 설치하는 한편 인공신장실 화장실은 남성용으로, 간호사실 내 화장실은 여성용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신장실 이용 환자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공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한 광주보훈병원에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신안 Home of Islands, Shinan

The 11th Shinan Tulip Festival

제11회 신안 튤립 축제

2018.4.11(수) ~ 4.22(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튤립공원

주최 : 신안군 | 주관 : 신안튤립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한국원예가협회